

統一新羅時代의 韓民族의 海上活動

閔 星 奎*

〈 목 차 〉

- | | |
|-------------------------|--------------------|
| I. 問題의 제기 | IV. 新羅의 民間貿易發達の 배경 |
| II. 統一新羅 이전의 海上活動 | 1. 新羅의 政治, 社會的 混亂 |
| 1. 海上活動의 범위 | 2. 天災와 기근 |
| 2. 高句麗의 海上活動 | 3. 東아시아 國際情勢의 變化 |
| 3. 百濟의 海上活動 | 4. 唐으로 이주한 新羅人社會 |
| 4. 新羅의 海洋進出 | 5. 新羅海賊의 出現 |
| III. 統一新羅의 東아시아 海上貿易 獨占 | 6. 統一新羅의 海上貿易과 張保臯 |
| 1. 三國統一後 羅唐의 對立과 日本관계 | V. 結語 |
| 2. 新羅의 빈번한 對唐交易 | |
| 3. 발해와 日本의 交易 | |

I. 問題의 제기

바야흐로 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다가오는 21世紀는 '아시아의 世紀' 또는 '太平洋의 世紀'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은 西洋인이 西洋社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世界海運史의 내용을 보면 古代와 中世에 地中海 海역에서 전개된 西洋사람의 海上活動과 15世紀말 地理上의 大發見時代이래의 近代 西洋海運의 발자취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世界海運史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우리는 印度洋, 東南아시아 및 東아시아 海역에서 전개된 여러 民族의 海上活動을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이웃나라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海上交通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 海上交通에 의하여 맺어진 주변국의 역사와 관련시켜 自國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연구동향이다. 東南아시아 各國의 역사는 海上 또는 河川의 交通을 통하여 東南아시아 전체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있어서 이는 상식 이전의 당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發想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할 따름이다¹⁾.

이 論文은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中國, 韓國, 日本의 東아시아 3개국사이에서

*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해운경영학과 교수

가장 일찍 海洋民族으로서의 전통을 수립하였던 우리의 海上활동을 新羅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아시아 海域에서 우리의 뒤를 이어 海洋을 제패하였던 中國人, 아랍人, 印度人, 日本人의 해양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차례로 탐구해 나아갈 예정이다.

II. 統一新羅 이전의 海上活動

1. 海上活動의 범위

쿨트 폰 베크만의 海上文化論에 따르면 인간이 海洋에 관심을 갖게 되는 4가지 자극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4가지 반응요소는 다음과 같다²⁾.

- 가) 식량공급원으로서의 海洋 - 어로(生業)
- 나) 道路로서의 해양 - 交易(重商性)
- 다) 權力手段으로서의 해양 - 政治
- 라) 체험으로서의 해양 - 文學예술, 지식, 종교, 철학

위의 네 가지 기본형태가 어떤 文化, 어떤 時代, 어떤 社會의 단계에서든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東南아시아의 水上生活者처럼 주로 첫 번째의 식량공급원으로서의 海洋과 이에 대응한 어로활동이라는 기본형태에 중점을 두는 民族이 있는가 하면 挪웨이(Norway)처럼 도로로서의 해양, 交易(重商性)이라는 기본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제3의 형태 즉 權力수단으로서의 해양(政治)은 제2의 海上貿易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古代로마, 大航海時代의 유럽 列強 특히 英國의 해상발전을 생각하면 분명해진다. 제4의 체험으로서의 海洋 즉 해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술, 지식, 종교, 철학사상의 발달은 古代東部 지중해처럼 비교적 제한된 지역에서 현저하였다.

이 글에서는 道路로서의 해양과 權力手段으로서의 해양활동만을 다룰 것이다.

2. 高句麗의 海上活動

高句麗는 일찍이 後漢과 國交를 맺었다(32년, 後漢 光武帝 8년). 中國의 三國時代(AD 220-280)에 高句麗 水軍의 강성함과 海上交通의 활발함은 널리 소문이 나서 江南의 吳王 孫權은 高句麗 東川王 10년(236) 사신을 高句麗에 보내어 高句麗와 연합하여 魏를 남북으로부터 공격하자고 제의하였다. 高句麗는 吳의 제의를 거부하고 2년후에는 도리어 魏와 연합하여 낙랑, 대방 및 華北地方에 세력을 펼치고 있던 公孫淵을 남북으로부터 협공하여 1世紀후에는 그곳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양국의 연합군은 前半에는 주로 陸上戰을 하였으나 20

여일 간의 장마 비로 遼河가 불어나 최후거점인 首山城 공격에 수천의 高句麗 水軍을 동원하여 성을 함락하였다. 廣開土王 때에는 王이 몸소 水軍을 거느리고 百濟의 58城을 탈취하였었다³⁾. 高句麗는 462년 이래 北魏(386-534), 東魏(534-50), 北齊(550-73)에 거의 每年 使臣을 파견하고 있다. 그 뒤 564년 이후로는 北周에 대하여, 619년 이후로는 唐(618-907)에 빈번하게 使臣을 보내 朝貢하고 있다.

日本의 자료에 의하면 高句麗의 使船은 570년(日本 欽明 31년)에 東海에 면한 日本의 越의 해안(지금의 石川현 金澤시 주변)에 도착하여 地方호족과의 교섭에 天皇이 개입하여 외교교섭이 성립한 것을 비롯하여 高句麗가 新羅에게 멸망당한 668년(日本 天智 7년)에 이르는 118년 간에 高句麗로부터 18회의 使臣이 日本에 도래하였다. 高句麗가 멸망한 뒤에도 AD 682년까지 高句麗 使船은 8회에 걸쳐 東海岸에 면한 日本지역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日本으로부터 高句麗에 使臣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 이는 6世紀 후반 韓半島에서는 百濟, 新羅, 高句麗가 삼국전을 전개하는 분쟁상태에 놓여 있어 日本 조정에서는 親百濟政策을 취하여 550년에는 百濟를 돕기 위한 군사를 파견하여 高句麗軍과 싸운 적이 있고 562년에는 다시 高句麗에 침공함으로써 高句麗와 日本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高句麗가 日本과 접촉을 개시한 배경에는 新羅와의 긴장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高句麗와 日本의 國交수립으로 인하여 AD 610년 日本에 건너간 高句麗 승려 曇首는 그림물감, 종이, 먹의 제조법을 전수함으로써 아스카文化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⁴⁾.

2. 百濟의 海上活動

(1) 中國과의 交流

낙랑郡은 313년에 高句麗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美川王 14년條에 「낙랑군을 침범하여 남너 2천여口를 노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결과로 낙랑郡을 기점으로 하여 韓半島, 日本열도의 각 지역을 잇는 交易網이 소멸되어 韓半島 南部地域은 北方으로부터의 高句麗의 南下에 직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게 되는 동시에 中國과의 사이에 새로운 交易路를 개척할 필요가 생겼다.

百濟의 사실상의 창건자나 다름없는 近肖古王(346-75 在位)은 위대한 정복군주로서 224년(369) 남쪽의 馬韓을 멸하고 同王 26년(371)에는 高句麗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故國原王을 사살하였다. 同王 27년과 28년에는 中國 江南을 지배하는 東晉에 使臣을 파견하였다. 이는 같은 해 소수림王 2년(372)과 同7년에 高句麗가 華北을 統一한 前秦(AD 351-383)에 使臣을 파견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宋書 列傳에 「百濟王 累葉(久爾辛王)이 忠順하여 험한 바다를 건너서 使臣을 보내니 그 성의가 가혹하다...」고 한 것을 보면 百濟는 高句麗의 영토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海路에 의하여 中國 大陸과 교류하였다. 南朝의 東晉의 뒤를 이은 劉宋(420-279), 南齊(479-502), 梁(502-557), 陳(557-589)과도 海上을 통하여 자주 교류하였다.

百濟는 華北의 北魏(386-534)와도 通交하여 개로왕 18년(472, 高句麗 장수왕 60년) 양국
 의 중간에 있는 高句麗를 연합하여 정벌하자고 간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百濟는 北魏와의 교통
 을 단절하고 말았다. 資治通鑑에 의하면 488년(百濟 東城王 10년) 北魏가 군사를 보내어 百
 濟를 쳤으나 百濟군에 의하여 敗하였다. 그 2년후인 百濟 東城王 12년 北魏는 大軍을 동원하
 여 百濟를 침략하였으나 沙法名, 木干那 등의 장수에 의하여 격퇴되고 말았다. 이 기사는 南齊
 書에 나오지만 三國史記에는 누락되어 있다⁵⁾. 北魏의 百濟침공은 중간에 高句麗가 있으므로
 海路에 의한 것이며 百濟도 水軍으로써 이를 맞아 勝利한 것이리라.

(2) 日本과 百濟

百濟는 이처럼 강력한 水軍을 보유하는 동시에 海上交通도 활발하여 위에서 본 中國과의 交
 易뿐만 아니라 倭國(日本)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百濟는 高句麗
 에 대항하기 위하여 近肖古王 16년(361)이래 日本과 교섭하여 倭兵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日
 本이 파병한 倭兵은 新羅와의 전쟁에 중군하여 가야地域을 점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는 百濟가 倭軍을 용병으로 불러들여 高句麗의 영향下에 있던 新羅에 대항하기 위한 守備隊
 로서 가야地域에 屯田시킴으로써 百濟는 大軍을 高句麗 공격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 時
 代前에 倭國의 生口(노예)의 對韓수출이 이번에는 傭兵이라는 형태로 변화된, 後進地域으로부
 터 先進지역으로의 人口移動이었다는 견해가 있다⁶⁾. 百濟의 書記들이 日本 조정에 배치되어
 漢文으로 기록해 나간 400년경 이전의 日本의 年代記나 기록들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⁷⁾.
 日本에 有力한 지배자가 나타나 100여國으로 구성된 야만족의 部族들을 정복하여 중앙의 지배
 권력을 확립한 것은 5世紀중엽의 일이며 南部큐우슈(九州)지방의 住民은 7世紀까지 半야만족
 이라고 생각되었다.

考古學的 사실로서는 우선 北部큐우슈(九州)지역에 형성된 초기 古墳文化가 야마또(大和; 나
 라縣) 東南부에 전파되어 양지역에서 발전을 보게 되나 5世紀중엽에서 후반에는 이 두지역에
 서 大形고분의 축조를 볼 수 없게 된 반면에 河內和泉(大阪府 남부)에서 초대형 古墳의 건설
 이 시작되고 이와 병행하여 備中(岡山현) 칩후(福岡현) 白向(宮崎현)에서 大形고분의 건설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마또 4世紀 중엽에 北部九州로부터 421년에 中國 南朝의 劉
 宋(420-79)에 使臣을 파견하였다는 倭의 5王(讚, 珍, 濟, 興, 武)의 하나가 그곳에서 야마또
 (大和) 동남부, 세도나이(瀨戶內海)지역을 지배하는 國家로 성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다. 5世紀 前半이후로 北部九州에서 고분의 규모가 갑자기 小形化되는 것은 그곳에서 강력
 한 權力자가 살아지고 그 대신 그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은 臣下가 신분에 어울리는 규모의 墓
 를 쓰게 되었을 것이다⁸⁾.

北部九州에 있었던 倭의 5王정권이 河內和泉으로 이동한 이유를 밝히는 열쇠가 石上神宮(나
 라현 天理市)의 七支刀라는 것이다. 그 銘文에는 「泰(始)4년(468) 5월 16일 丙午正陽, 百鍊
 鋼의 七支刀를 만들다. 이로써 百兵을 물리치리...永年 大吉祥이리(이상 表面) 先世이래 아직
 이만한 칼 없음이라. 百濟王의 世子 나면서부터 聖德 있음이라. 故로 倭王을 위해 (비로소) 만

들었나니 後世에 傳示하라(이상 이면)」

여기에 百濟王은 개로王(455-75 在位)으로 그世子는 뒤의 文周王인데 百濟王이 倭王에게 倭國內에서 군사행동을 명하였을 때 일종의 재앙을 물리치는 부적으로서 이를 수여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즉 百濟王은 용병대장인 倭王의 세력이 강대해지면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멀리 떨어진 河內지방에 봉함과 동시에 新羅에 대항하기 위한 傭兵의 징집을 명하였고 百濟王은 北部九州를 직할지로 삼아 약간의 官員과 소수의 軍士를 파견하여 주둔시켰으리라는 것이다⁹⁾.

이렇게 볼 때 5-6世紀에 韓半島로부터 잘 조직된 集團을 이루어 여러 가지 技術과 知識을 가지고 야마또國의 首都지역으로 이주한 대량移民의 물결은 古代 페니키아나 그리스의 海洋民族이 地中海연안의 각처에 植民도시를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植民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야마또 貴族사회에서 韓國의 移民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는지는 815년에 편찬된 貴族系譜(新撰姓氏錄)에 나타난 中央귀족 1,182家 중에서 3분의 1이상이 渡來人이었던 것이다¹⁰⁾. 百濟의 王子 중에는 日本에서 살았거나 倭國에서 출생한 경우가 많았는데 武寧王(501-523 在位)은 倭國의 各羅島에서 출생하였으며 同王의 棺木은 日本의 야마또 地方에서 가져온 것임이 고증되고 있다¹¹⁾.

이리하여 百濟는 中國의 南朝와 특히 倭國과 交流하는데 있어서 가장 有利한 立地조건을 갖추고 黃海와 大韓해협에서 가장 활발한 海上活動을 전개한 海洋國이었다.

3. 新羅의 海洋進出

(1) 新羅의 漢江유역확보

新羅의 모체는 辰韓12개 城邑국가중의 하나인 斯盧였는데 奈勿마립간(356-402)때에 이르러 洛東江 동쪽의 慶北일대를 지배하는 상당히 큰 연맹왕국을 형성하고 지금까지의 칭호인 尼師今 대신에 麻立干이라는 왕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그는 伽倻와 倭를 동원해서 新羅를 괴롭히는 百濟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高句麗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¹²⁾. 新羅는 奈勿마립간 22년(377년) 高句麗와 함께 前秦에 사신을 보내어 朝貢하였다. 高句麗의 使臣을 따라서 간 것이니 海上이 아니라 陸路로 교통한 것이다. 그로부터 4년후에는 다시 조공하였는데 秦書에 의하면 「新羅왕 樓寒(나물)이 사신 衛頭를 시켜 美女를 바쳤다. 新羅國은 百濟國의 동쪽에 있다」고 적고 있다. 이때에는 百濟의 사신을 따라서 百濟船便을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139년간 中國과의 通交가 단절되었다가 法興王 8년(521)에 中國江南의 梁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梁書에 보면 「普通 2년에 新羅왕 募名秦(法興王)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왔다. 新羅사신은 百濟사신을 따라서 왔으며 각기 方物을 마쳤다」고 하였으니 新羅의 사신은 百濟 武寧王(21년)의 사신을 따라간 것이 분명해진다¹³⁾. 新羅가 高句麗로부터 독립해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450년경부터이다. 눌지(訥祗) 마립간(417-458) 17년(433) 高句麗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百濟와의 동맹을 체결하여 高句麗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慈悲 마립간(458-479)때로 생각된다.

智證王(500-514)때에는 국호를 新羅로 고치고 麻立干대신에 中國식으로 王이라 호칭하였다. 法興王(514-540)에 의하여 新羅는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서의 지배체제를 완성하였다. 이 무렵부터 新羅는 對外的으로 비약할 수 있는 태세를 이룩하였다. 지증왕때 于山國(울릉도)을 정복하였고 법흥왕 때에는 洛東江 하구에 위치하여 북으로 낙랑, 대방 등의 漢의 군현과, 남으로 倭와 교통하고 있던 金海의 本伽倻를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新羅의 對外발전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眞興王(540-576)이었다. 그는 12년(551) 百濟의 聖王과 공동으로, 귀족의 내분으로 방위력이 약화된 高句麗를 공격하여 漢江상류지역의 10郡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新羅는 동왕 14년 百濟의 中國대륙에 대한 관문인 漢江하류지역의 百濟군대를 몰아내고 한강지역 전부를 독점하였다. 이로써 120년간 유지된 양국의 동맹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新羅의 漢江유역 점령은 이 지역의 풍부한 人的, 物的 자원의 획득뿐만 아니라 中國과 통교할 수 있는 문호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자못 큰 의의가 있다. 진흥왕 23년(562)에는 고령의 大伽倻를 멸하여 낙동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였다¹⁴⁾.

이리하여 진흥왕 25년(564) 이후로는 新羅도 다른 三國과 더불어 中國 北朝의 北齊(550-73), 北周(557-81), 南朝의 陳(557-89) 그리고 中國을 통일한 隋(589-618), 唐(618-907) 제국에 거의 매년 使臣, 留學生, 留學僧을 보내어 中國의 先進文物을 수입하는 한편 활발한 交易을 하기에 이르렀다.

漢江하류를 확보한 新羅는 이제 黃海, 東支那海 및 大韓해협의 지배자가 되었다.

(2) 新羅의 왜구(倭寇) 방어와 水軍

倭國은 中國의 靑銅의 원료를 낙랑을 통하여 수입하고 韓半島남부의 鐵의 소재, 견직물, 銅 거울 등을 입수하기 위하여 大韓해협을 왕복하고 있었다. 낙랑郡이 高句麗에 의하여 멸망하자 新羅와의 交易이 중요해졌다. 交易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는 무력에 의한 약탈에 호소하였다. 倭의 新羅 沿海에 대한 약탈은 新羅의 시조때(BC 50)부터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232년에는 新羅의 서울, 慶州가 倭軍에 의하여 포위된 것을 비롯하여 459년까지에 5회나 포위당하였다.

新羅는 233년 倭적이 沙道 앞바다에 침입하였을 때 이찬 于老로 하여금 水軍으로써 倭군을 포위하여 火攻法으로 격파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新羅는 289년에 理舟楫이라하여 軍船을 정비하여 水戰준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후 智證王 6년(505)에는 制舟楫之利라하여 水軍제도를 처음으로 제정하고 4년뒤에는 軍船의 정비와 확장을 도모 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新羅 水軍은 于山國(울릉도)를 정벌하였으며 이 때부터 倭軍의 침입은 근절되었다.

眞平王 5년(583)에는 兵部에 船部署를 신설하여 水軍을 관장하게 되었다. 文武王 9년(669)에는 新羅가 三國을 통일하여 水軍이 경비해야 할 해안선이 크게 연장되고 海外交易과 해사수송업무가 늘어나 軍船운영의 합리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水軍제도를 확장강화할 필요성에서 그 18년(678) 지금까지 兵部 산하에 있던 船府를 독립시켜 기구를 확장하였다. 또 神文王

8년(688)에는 船府의 인원을 증원하고 그 장관은 兵部, 調部(재정·통상을 담당)의 그것과 같은 太太角干으로 보임하게 되었다¹⁵⁾. 文武王 2년(662)에는 耽羅(제주도)를 복속시키고 그 19년(679)에는 新羅에 병합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원래 古代의 水軍활동과 海上交易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軍船은 지금처럼 특수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하여 海戰의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水軍을 태우고 적과 싸우면 軍船이 되고 적과의 전투없이 연안경비를 포함한 海上交易에 종사하면 商船(交易船)이 되었던 것이다.

(3) 日本의 海上交易과 新羅人の 공헌

日本의 造船術에서 新羅人이 끼친 공헌부터 살펴보자¹⁶⁾. 日本書紀 應神天皇 31年 8月條에 新羅 使臣이 묵고 있던 武庫의 失火가 500척의 선박이 계류하던 곳에 번져 많은 배가 불탔는데 新羅人을 책망하자 新羅王은 이를 듣고 能한 匠人을 보내 왔다. 이 자가 猪名部の 시조로서 대대로 조선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新羅의 조선기술도 아직 유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新羅 초기에 中國에 통교할 때에는 百濟의 사신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후 日本은 中國과 7世紀초부터 직접 교통함에 따라 큰 선박이 필요하게 되었다. 日本書紀의 653년조에는 遣唐使를 보낼 때 2척의 배를 사용하였는데 각기 120명이 승선하였다. 이는 649년에 渡來人을 安藝지방에 보내서 百濟船 2척을 건조하였다는 바로 그 배일 것이라고 한다. 그 뒤로는 오랫동안 韓人造船에 관한 기사가 보이지 않다가 續日本後記 839년 7월에 北九州의 외교·국방 담당 관청인 太宰府에 명하여 新羅船을 지었더니 능히 風波를 감당하였다는 것이다. 또 840년 9월 條에 보면 「對馬島司가 풍랑 때문에 한 해의 貢物과 네차례의 公文이 물에 빠졌다. 듣건대 新羅船은 파도를 능히 견딘다고 한다. 바라건대 新羅船 6척중 1척을 할애해 줄 것을 주청하였기에 들어주었다. 이는 지난 해에 太宰府가 지은 新羅船이리라.

日本이 그 옛날에 낙랑, 대방의 中國 郡縣과 직접 교통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百濟船에 의한 중개貿易에 의존하였음에 틀림없다. 新羅人도 日本의 遣唐 使節의 내왕을 원조하였다. 日本이 中國과 國交를 트게된 것은 隋의 開皇 20년(600)에 倭王의 사신이 수를 방문한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정식으로 대규모의 使節團을 隋에 파견한 것은 607년(推古天皇 15년)이다. 日本書紀에 보면 「秋 7月 小野妹子를 大唐(실은 隋)에 보냈다. 鞍作福利에게 통역을 맡겼다」는 것이다. 百濟에서 말(果下馬)을 倭에 보낸 것은 불과 몇 년전의 일이고 말 안장을 제작하는 기술자도 달려 보냈을 터이니 통역을 맡은자는 百濟人이 틀림없으며 倭의 사신이 타고 간 배도 日本의 조선술이 형편없었던 때이므로 百濟 선박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다음해에 倭 사신이 돌아올 때에는 隋 사신과 함께 왔다. 日本書紀 630년 7월 條에 「秋 7月 犬上君과 矢田部造 등이 唐으로부터 귀국하였다. 이때 百濟의 사신이 犬上君과 함께 來朝하였다」는 것은 필시 百濟船便으로 귀국한 것이 분명하다¹⁷⁾. 同書 623년 7월 條에 唐 留學僧 蕙齊 등은 新羅사신이 日本에 올 때 따라왔고, 639年 9月條에는 唐 留學僧 蕙隱 등이 新羅사신을 따라 귀경하였다. 나아가 齊明記 3年 條에는 新羅에 사신을 보내어 沙門智達 등을 新羅사신에 달려 唐에 파견하려 하였

으나 거절당하여 智達 등은 귀환하였다. 그러나 이듬 해(658) 7월에 智達 등은 왕명을 받고 新羅船便으로 唐에 들어가 현장法師에게서 불도를 닦았다. 日本의 遣唐使파견은 630년에 시작하여 838년까지 18회가 계획되었으나 그중 3회는 중지되었다. 평균 14년에 1회의 꼴로 파견한 셈이다. 그 이후로 日本은 唐-新羅-日本간 新羅의 中繼貿易을 이용하게 되었고 新羅가 海上貿易을 독점하게 된다. 唐에 파견하는 日本使節團이 新羅의 선박선원을 이용하거나 교통·통신에 있어서 新羅人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던 상황은 統一新羅 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¹⁸⁾. 百濟가 羅唐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멸망할 때 百濟를 도와 파병하였던 日本의 水軍은 663년 百村江에서 전멸하였다. 이를 계기로 倭의 海賊이나 對唐 海上活動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Ⅲ. 統一新羅의 東아시아 海上貿易 獨占

1. 三國統一後 羅唐의 對立과 日本관계

(1) 긴밀한 新羅와 日本의 交易

百濟의 멸망(660)과 百村江에서의 倭軍의 完敗로 百濟 땅은 唐의 지배하에 놓인 한편 新羅의 세력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철수한 日本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664년 百濟에 주둔하는 唐의 장군 劉仁願의 使節이 日本을 방문하였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百濟의 故土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唐의 사신이 6회에 걸쳐 日本에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668년과 671년에는 百濟의 使節이 건너갔는데 이는 유인원의 승인 하에 新羅와의 대항책으로 日本과 동맹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¹⁹⁾.

唐의 군사를 百濟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군사행동을 전개하던 新羅는 文武王 15년(675)까지 唐의 군사를 百濟 땅에서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日本은 唐에 遣唐使를 834년까지 14년에 1번 꼴로 계속해서 파견하였다. 그러나 新羅와 唐의 관계는 文武王 15년(675)부터 孝昭王 7년(698)까지의 20여 년 간 使節의 왕래가 거의 없는 냉각상태가 이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新羅는 日本에 668년부터 697년까지 거의 매년 사신을 파견하는 밀접한 관계가 계속된다. 新羅는 唐에 대항하기 위하여 日本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²⁰⁾.

高句麗도 멸망하는 668년까지 日本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그 뒤에도 新羅에 망명하여 益山에서 高句麗王으로 봉해진 왕자 安勝의 使節은 新羅에 합병되기 전해(682)까지 거의 매년 日本과 통교하였다.

그밖에 탐라(耽羅)역시 日本과 교류하였다. 665년에 시작하여 677년까지 7회 사신이 日本을 다녀갔고 그 후 679년과 684년에 日本은 탐라에 사신을 보냈다. 탐라가 新羅에 복속한 것은 文武王 2년(662)이었으나 그 19년(679)에 탐라에 다시 新羅의 사신을 보내어 복속시킨

것을 보면 이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합병된 셈이다. 그러나 탐라의 마지막 使節은 693년에도 파견되었다²¹⁾.

그러나 孝昭王 8년(699)이래 羅唐간의 국제정세는 크게 변하여 聖德王(재위 702-37)이 즉위하면서 新羅는 唐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 이는 唐이 종래의 정책을 전환하여 大洞江 이남의 韓半島 지배를 新羅에게 실질적으로 인정한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新羅로부터 日本에 파견되는 使節의 수는 줄게 된다. 이 때문에 日本은 큰 타격을 받게 되어 703년부터 706년 사이에 日本은 新羅에 3회에 걸쳐 使節을 파견하였고 709년에는 新羅의 使節로 日本에 온 金信福 일행에게 新羅 使節의 파견을 늘리도록 간청하였으나 新羅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서 使節의 파견은 차차 줄어들만 갔다²²⁾.

(2) 對日交易品

이 시기에 新羅로부터 日本에 건너간 물품은 唐, 新羅에서 만든 공예품, 서적, 직물, 약재, 진기한 동물, 모피 등이고 日本에서 수출된 것은 生糸, 견직물, 풀솜(雪綿子)이 기록에 보인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書紀 天武天皇 8년(679년) 10月 甲子(17日)條에 「金, 銀, 鐵, 鼎(세발 쇠 그릇으로 옛 권위자의 상징물), 錦, 絹, 布, 馬, 狗, 라, 낙타, 皮 등 10여종, ... 天皇, 皇后, 太子에게 金, 銀, 刀, 旗를 바치다...」로 적고 있다. 이에 대하여 日本의 조정에서 보낸 물건에 대해서는 續日本記 和銅 2年(709) 5月 壬午(27日)條에 「金信福 등에게 朝堂에서 연회를 베풀고 차등을 두어 선물(祿)을 주다. 아울러 國王에게 絹 20필, ... 糸 200구, 綿 150屯을 주다」로 되어 있어 日本에서 보내는 물건은 絹織物, 絹糸, 풀솜(雪綿子)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日本의 특산물로서 韓國이나 大陸에서 수요가 컸으나 이것만으로는 貿易품으로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公式 선물 이외에 중요한 商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人間 즉 傭兵 혹은 노예이다. 韓半島에서 渡來人(移民)이 日本에 유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구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對馬島의 銀이었을 것이다. 日本書紀(674년)에 의하면 對馬島에서 은이 처음으로 생산되었다. 日本後記의 기사에 있는 것처럼 新羅는 對馬에 양곡을 수출하였는데 은을 수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新羅에서는 은을 국내의 通貨로서 유통시키기 보다는 中國으로 보내는 수출품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 밖에도 749년에 日本의 東北部에서 처음으로 砂金이 나서 그 이후 金은 日本의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金, 銀을 수출하여 대륙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를 수입한다는 17世紀말까지의 日本의 國際貿易형태는 이미 이 때에 형성된 것이다.

新羅로부터 日本에 보내는 使節의 파견은 799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두절되었다. 이는 야마토의 나라(奈良)에 도움을 정하였던 헤이조쿄(平城京)의 時代(710-84)와 거의 일치한다. 아스카(飛鳥), 나라(奈良)시대의 律令制國家의 형성과 文化의 발전을 지탱한 것은 평균 14년에 1회 꼴로 파견된 遣唐使에 의한 것이 아니라 新羅조정에 의한 唐-新羅-日本 사이의 官營中繼貿易이었음을 알 수 있다.

統一新羅時代に 들어와 新羅는 668년부터 700년까지의 32년 동안 日本에 26회나 使節을 파견함으로써 매년 거의 빠짐없이 交易하고 있다. 이 기간에 日本으로부터 新羅에 파견된 使節은 11회였다. 그러나 701년부터 779년까지의 79년 동안에는 新羅가 日本에 19회, 日本이 新羅에 14회 使節을 보냈다.

2. 新羅의 빈번한 對唐交易

三國統一 이후 700년까지의 35년 동안 新羅와 唐은 使節을 각기 6회씩 파견하였다. 日本으로 파견된 新羅의 使節의 횟수가 점차 감소한 701년부터 776년까지는 新羅와 唐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新羅는 76년간 62회나 唐에 使節을 파견하였고 같은 기간에 唐은 新羅에 단지 8회의 使節을 보냈을 뿐이다. 統一新羅의 海上活動이 얼마나 활발하였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新羅와 唐의 관계도 惠恭王 2년(776)을 고비로 밀접했던 시기는 지나고 그 뒤 哀莊王 7년(806)까지의 30년간에 新羅가 唐에 파견한 사절은 3회에 불과하다. 그 주된 원인은 海公王 4년(768)의 大恭의 亂으로부터 비롯되는 新羅 국내의 政治적 混亂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애장왕 7년(806)이후 文聖王 1년(839)까지의 33년간에 新羅에서 唐으로 파견한 使節은 합계 16회로서 평균 2년에 1회씩 건너갔으나 그 뒤로는 사실상 두절되고 말았다. 같은 기간에 唐의 使節은 新羅에 2회 파견되었으나 그후 841년부터 897년까지 唐은 新羅에 6회의 使節을 파견한 반면에 新羅에서 唐으로 파견한 使節은 2회에 불과하였다.

新羅에서 唐으로 가는 수출품(주로 조공품)은 三國史記에 따르면 金, 銀, 銅, 人參, 牛黃, 魚牙紬, 細布, 布, 頭髮, 海豹皮, 果下(小)馬, 개(狗), 바늘(針), 각종 금은 細工品 등이었다²³⁾. 그 밖의 조공품이나 私貿易품으로서 新羅刀, 말안장(馬鞍), 인삼 등을 들 수 있다.

中國으로부터의 수출품은 서적, 서화, 銅錢, 도자기, 生糸, 絹織物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3. 발해와 日本의 交易

日本에서 新羅와의 交易축소를 보충한 것이 발해(渤海)와의 교섭이었다. 발해의 건국은 698년의 일이며 713년에는 국왕이 唐으로부터 발해郡王으로 봉해져 唐과 발해의 관계가 안정되었다. 발해는 高句麗 이래의 唐新羅와의 긴장관계를 인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는 분쟁이 잦아서 日本과 교류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고 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新羅에 대항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762년 이래로는 오로지 貿易을 위한 使節의 파견으로 변화하였다.

발해로부터 日本에 使節이 처음으로 파견된 것은 727년이었다. 同年 12월 9일 條의 續日本記에는 「발해郡은 옛 高句麗이다...唐의 장군 李勣이 淡海朝廷 7년 冬 10月 高句麗를 멸망시켰다. 그후 조공은 오랫동안 끊어졌다가 이에 발해郡王이 장군 高仁義 등 24인을 파견해 왔다. 그러나 에시미 地方에 도착하여 高仁義를 비롯한 16인이 살해되고 8인이 간신히 죽임을 면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후 발해는 919년까지 195년간에 41회, 거의 5년에 1회의 꼴로

使節을 파견하였는데 항해의 어려움 때문에 東海에 면한 日本의 각처의 도착지가 일정하지 않았다. 도착時期는 가을부터 초겨울이 많았다. 이는 北西 계절풍을 타고 東海를 단숨에 횡단하는 항로를 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도착지에서 월동하고 봄 4월에 入京하여 官貿易을 행하는데 日本 體制 중에 私貿易도 성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²⁴).

발해에서 가져오는 物品은 담비, 불곰, 호랑이, 표범 등의 毛皮, 인삼, 벌꿀 등이 기록에 남아 있고 日本쪽의 수출품은 견직물, 견사(絹糸), 풀솜, 비단 등의 고급섬유제품이었는데 궁중의 무희(舞姬)를 보낸 적도 있다²⁵).

820년 발해 사신 李承英은 돌아갈 때 唐의 越州人 周光翰을 동반한 일도 있다(日本紀略). 이 항로가 日本에 있던 唐人的 歸路로도 이용되는 등 大陸과의 중요한 交通路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항로에서는 보통 105인의 使節 이외에도 留學生, 그 가족, 留學僧 등 다채로운 사람들이 승선하였다. 日本의 遣唐使가 폐지된 후로는 발해항로가 최후의 공식 비단의 길이였으며 불안정한 南海路를 보완하는 중요한 外交通路로 되어 있었다²⁶).

한편 日本은 728년부터 920년까지 발해에 31회, 6년에 1회 꼴로 使節을 파견하고 있다.

IV. 新羅의 民間貿易 발달의 背景

1. 新羅의 政治社會的 混亂

韓半島가 668년에 통일된 뒤의 1世紀가 新羅로서는 政治的으로나 文化的으로 黃金時代였으나 그 뒤로는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

政治的 混亂은 惠恭王 4년(768)에 일어난 大恭의 亂에서 시작되었다. 대공의 반란은 전국의 96角干이 서로 항쟁했다고 할 정도로 그 유래를 볼 수 없었던 大亂으로 확대되어 3년간이나 계속되었다. 同王 10년(774)에는 귀족 良相이 정권을 탈취하는데 성공하여 780년 宣德王이 되었으며 혜공왕은 피살되었다. 이 이후를 보통 下代라고 부르는데 中代에서 下代로의 변동은 왕권의 전제주의에 대한 貴族들의 반항에 의해서 초래되었다. 그 결과로 下代의 新羅는 貴族연립적인 방향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조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憲德王 14년(822)의 金憲昌의 亂이었다.

그러나 전제적인 王權을 타도하는데 협력한 귀족들 상호간에도 대립과 항쟁이 일어났다. 경덕왕 16년(757)에 祿邑을 부활시켜 귀족들의 개인적인 재산의 증대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었다. 그들은 政治的 권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門客을 모으고 私兵을 양성하였다. 소유하는 노비나 사방으로 흘러 다니는 流民을 모집하여 무장한 것이다. 이제 王位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政治的 실력과 武力의 우열로 결정되었다²⁷). 新羅 下代의 약 150년 동안에 20명 이상의 왕이 즉위하였으나 그 대다수는 왕위계승권에서 非命으로 죽었다.

2. 天災와 기근

이에 더하여 특히 憲德王(809-825 재위)때의 잇따른 天災와 흉년(凶年)은 국민의 일반적 기근과 빈곤화를 가중시켰다. 특히 同王 13년(821)에는 기근으로 자식을 팔아 자활하는 자가 있을 정도였다. 社會秩序가 붕괴되어 감에 따라 농노들은 農莊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가 늘어났으며 때로는 海賊이 되기도 하였다²⁸⁾. 스스로 他國으로 流亡하거나 노예로 팔려 外國에서 살 길을 찾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8世紀에 들어와 日本에서는 新羅로부터 건너오는 渡來人을 받아들여 정착시키지 아니하고 돌려보내는 政策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다²⁹⁾.

日本, 中國 등의 海外로 進出하는 移住者, 漂着民이 늘어났던 것은 新羅의 흉수, 凶年, 기근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人口의 급격한 增加가 있었을 것이다.

新羅통일후의 人口領土의 증대와 1世紀동안의 社會的 安定에 의한 生産力과 산업의 발달은 지배계급의 生活水準을 向上시켜 唐으로부터 오는 사치품에 대한 수요를 초래하였다. 中國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世界의 전통인 朝貢의 형식에 의한 使節의 公私貿易만으로는 이러한 需要를 감당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다³⁰⁾.

이 시대의 交易상품의 특징은 사치품이라는데 있다. 新羅가 日本에 수출한 것은 唐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의 전매가 많았고 日本의 綿, 絹 등을 수입하였다. 唐으로 수출한 물품의 특징은 대부분이 사치품이고 노예도 중요한 상품의 하나로서 해상세력의 중요한 收入源이었다³¹⁾. 또 唐에 대한 수출품은 타국상품의 再輸出이 아니고 新羅의 생산품이었다. 또 唐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은 종류로는 수출품에 비하여 적지만 질적으로는 귀한 사치품으로서 각종 工藝品, 絹織物, 茶, 문방구, 서적, 西南海地域 産物인 유향, 沈香을 비롯한 각종 香料, 유리기구, 瑟瑟(珠玉), 玉, 공작꼬리, 비취毛, 담등(羊毛織 坐具)등이었다³²⁾.

3. 東아시아 國際情勢의 변화

(1) 唐의 政治的 쇠퇴

唐의 國力은 百濟와 高句麗를 멸망시킨 그 때부터 기울기 시작하였다. 귀향하는 新羅에게 大洞江 이남의 韓半島 지배권을 인정한 것은 이미 쇠퇴의 첫 징후였다. 安史의 亂(755-63) 이후로는 皇帝의 통치권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安史의 亂이 끝난 후 唐 代宗은 安史의 亂 때 降將으로 하여금 河北지방의 세력으로 남도록 승인하여 藩鎮의 節度使로 이들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唐왕조가 서쪽의 토번(티베트)을 막느라 동쪽을 돌아볼 힘이 없는 시기를 이용하여 웅거하면, 풍족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河北의 경제조건에 의지하여 軍을 조련하고 마을을 정비하여 節度使의 친위병인 牙兵을 핵심으로 한 강대한 무장세력을 확립함으로써 잔인포악한 군사통치를 실시하였다. 한곳에 할거하는 節度使는 父子가 세습하며 스스로 관직을 주고, 군사를 제멋대로 부리고, 호적을 중앙에 보고하지 않으며 부세(賦稅)를 조정에 보내지 않았다. 군비축소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진압할 힘이 없었고 다만 반란군의 장수를 節度使로 임명했을 뿐

이다³³⁾.

高句麗 遺民의 자식으로 765-819년까지 55년간 在唐 新羅人의 집단거주지역의 중심이었던 山東半島 10州 전역을 지배하였던 平盧淄青節度使 李正己 일가(李納, 李師古, 李師道)도 그러한 변진 세력의 하나였다. 唐왕조에 가장 강하게 반항한 치청 변진의 節度使였던 李正己의 군사력의 기반은 그곳의 넉넉한 人的, 物的 자원에 있었으나 그의 엄청난 경제력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그가 발해와 말(馬)交易을 하였다는 점이다³⁴⁾.

이리하여 新羅와 唐 조정과의 朝貢형식에 의한 使節의 交易은 곤란해졌다.

(2) 日本의 정책변화

日本과 新羅와의 관계에서도 이 무렵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續日本記 神護景雲 2년(768) 10월 甲子(24일) 條에 의하면 「左右의 大臣에게 太宰(府)의 綿을 각기 2만屯, 大納言 偉, 弓削御淨 朝臣清人..에게 각 1만屯을 주다. 新羅의 交易物을 사기 위함이다」고 적혀있어 新羅와의 貿易을 私人에게 위탁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아마도 太宰府가 貿易量의 증대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에 대처할 수 없었거나 綿보다 더 유리한 貿易상품(예컨대 銀)이 출현하여 綿의 거래를 私人에게 위탁하게 되었을 것이다.

마침 新羅의 국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惠恭王 4년(768)에 일어난 大恭형제의 반란 이후 80년간 王位쟁탈전이 격화되는 混亂期를 맞는다. 이 때문에 공식의 使節의 파견이 어려워진 결과 新羅와 日本간에 民間商人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日本後記 弘仁 5년(814) 10월 丙辰(13일) 條에 「新羅商人 31인 長門國(지금의 山口현) 豐浦郡에 표착하였다」는 것이 新羅商人에 관한 첫기사인데 이 때부터 新羅商人의 활동이 활발해졌을 것이다.

한편 新羅로부터의 渡來人은 日本측의 제한책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가한 모양이다. 續日本記 774년 5월 17일 조에 의하면 太宰府에 지시하여 금년 新羅인이 빈번히 내착하여 그 연유를 물으면 풍파에 밀려서 돌아갈 수 없으니 머물러 우리백성이 되나 앞으로는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였다」는 것이다³⁵⁾.

4. 唐으로 이주한 新羅人社會

韓民族의 中國으로의 이주는 羅唐연합군에 의하여 百濟와 高句麗가 차례로 멸망한 뒤 전쟁포로로서 끌려오거나 新羅 下代처럼 헌덕왕 8년(816)의 흉년으로 西海岸의 170여명의 굶주린 백성이 唐의 浙東지방으로 이주한 예도 있다³⁶⁾. 海賊에 의하여 납치되어 노예로 팔려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진평왕 43년(621)의 설계처럼 新羅의 엄격한 骨品制度에 의한 신분상의 한계를 벗어나 큰 뜻을 펴려고 밀항하여 入唐하거나 留學生, 商人 또는 修道僧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자 등 唐에 들어간 동기는 각기 달랐다.

그러나 가장 큰 집단이주민이 생긴 것은 百濟와 高句麗의 전쟁포로였다. 百濟가 멸망하자(660) 唐은 王과 그 가족 58명을 비롯하여 大臣등 88명과 백성 12,807명을 데려갔다³⁷⁾. 高句麗를 멸망시킨 해(668)에는 반항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抽戶移植정책으로 38,300戶의 高句

麗 유민을 江淮의 남쪽, 山南·京西의 빈 땅에 이주시켰다³⁸⁾. 이는 오늘날의 江蘇·浙江 양 省 지방, 陝西省 西部, 甘肅省 동부, 河南省 동부, 山東省 서부에 해당한다.

이보다 앞선 누차의 麗·唐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이송된 高句麗인들도 많았다. 舊唐書 권 199, 東夷傳 高麗條에 의하면 唐太宗때의 遼東城 공격에서 포로가 된 1만 4천명의 高句麗을 노비로 삼았고 같은 해 蓋牟城(심양과 요양 사이) 함락 때 2만명, 卑沙城(大連 부근) 함락시 男女 8천명³⁹⁾, 白岩城(요양 동쪽) 함락때는 남녀 1만여명을 각기 포로로 하였다. 또 安市城 함락과 더불어 요동 10城이 唐軍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7만명의 高句麗인이 唐으로 끌려갔다.

이와같이 亡國의 한을 품고 唐에 강제로 이주된 遺民 중에서는 唐의 帝國건설과 東西교섭사에서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高仙芝를 비롯하여 泉獻誠, 王毛仲, 王思禮, 李正己 등은 모두 위훈을 세운 영웅호걸이었다⁴⁰⁾.

838년부터 847년까지 9년간 唐에서 修道한 日本의 留學僧 圓仁은 新羅人의 집단거주지역인 楚州, 揚州, 漣水 등의 新羅坊의 실태와 山東의 赤山지역 在唐 新羅人의 生活相에 대하여 기록한 상세한 旅行記로서 入唐求法巡禮行記를 남겼다. 이에 의하면 大運河 연변에 살고 있는 新羅人은 水上운송업, 조선업, 貿易業, 농업, 소금장사, 갈대장사, 숯장사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⁴¹⁾.

中國은 政治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經濟의 진보는 대단하여서 8世紀에서 13世紀의 唐·宋시대에는 상업혁명기였다. 713년 이래 海外貿易이 집중된 항구에는 市舶司라는 관청을 두어 貿易을 감독하였다. 新羅人이 가장 많이 살던 지역의 하나인 揚州는 天下第1의 국제무역항이었다. 唐朝 중엽의 廣州의 강에는 페르시아, 아랍, 인도, 곤룬(崑崙) 등 南海로 취항하는 선박이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향약, 진기한 보물을 산적하고 廣州에 오는 선박은 매년 4천여 척에 달했다⁴²⁾. 貿易을 위해서 唐에 거류하는 외국인도 많아서 9世紀경에 山東반도에는 新羅人이, 廣州 지역에는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이 定住하면서 貿易을 지배하고 있었다. 揚州에는 日本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海上貿易商으로 성공한 新羅人 王請, 王宗이 거주하고 있어서 圓仁은 이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만나고 있다. 海上貿易에 종사하는 新羅人들은 揚州에 드나드는 아랍인으로부터 그들의 발달한 天文學과 航海術에 관한 노하우를 얻어 더욱 항해기술과 조선기술의 향상을 가져왔을 것이다.

唐帝國은 개방적인 세계국가여서 1백만명의 인구를 가진 長安에는 세계각국의 外國人이 5만 명이나 거주하였으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新羅人으로서 8천명이었다고 한다⁴³⁾. 837년 당시에 唐의 國學에서 수학중인 학생은 216명이나 되었다.

이들 唐에 거주하는 新羅의 居留民들은 海上貿易을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네트워크(network)으로서 船員, 導船人, 통역, 중개, 대리점, 보관업, 주선업, 선박수리업, 조선업, 선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5. 新羅 海賊의 出現

新羅 海賊의 활동에 관한 기사가 史料에 나타나는 것은 9世紀에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日本

後記 弘仁(811) 8월 12일 條에 「太宰部の 말인즉 新羅人 金巴兄, 金小巴, 金乘弟 등 3인이 이르기를 지난해 本縣에 곡식을 싣고 오다가 海賊을 만나 같이 오던 자 모두 빠져 죽었다... 자기 고향사람이 왔다가 돌아간다니 바라건대 그 배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

이 일이 있는 직후에 新羅의 海賊은 對馬島를 습격하였다. 日本後記 弘仁 3년(812) 1월 5일 條에 다음 기사가 있다. 「太宰府의 보고에 의하면 금월 6일 新羅船박 3척이 對馬島 西海에 나타나 갑자기 1척이 사스浦에 도착하였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소식을 알수 없고 나머지 2척은 밤중에 사라져 간 곳을 알 수 없다. 7일 배 20여척 섬 西쪽에 있어 촛불이 잇닿았다. 이에 海賊船인줄 알고 앞서 도착한 자 5인을 죽이다. 5인은 도망쳤으나 나중에 4인을 포획하다. 兵庫을 지키고 군사를 발하다. 멀리 新羅쪽을 보니 밤마다 불빛이 여러 곳에 있어 두려움을 금할수 없다」

또 日本記略 弘仁 4년(813) 3월 18일 條에는 「...新羅人 1백 10인이 5척의 배를 몰아 오지카島에 도착하여 주민과 서로 싸웠다. 9인을 타살하고 1백1인을 포획하였다」

9世紀초 新羅에는 흉작이 계속되어 많은 사람이 日本에 流入하였는데 이 무렵 黃海나 東支那海에서는 海賊이 활동하였다. 舊唐書 本紀 長慶 1년(821) 3월 丁未條에 「平盧의 薛平 상주하기를 海賊이 新羅의 良口를 연해의 郡縣에 붙잡아다 팔고 있다. 청하건대 근절시켜 달라기에 이에 따랐다」고 하였다. 노예로 팔리는 新羅의 良口는 日本으로 가는 渡來人과 마찬가지로 新羅에서 唐으로 가는 말하자면 移民이었다. 당시 黃海와 東支那海의 해상교통에서는 新羅인이 크게 활약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주요 港市에는 新羅人の 居留地가 있었다.

同書 穆宗本記 長慶 3년(823) 정월 丁巳 條에 「칙명으로 新羅人을 노비로 팔 수 없도록 한다. 이미 中國에 있는 자는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것을 보면 단속은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다. 唐會要 太和 2년 10월 條에 薛平은 또 다시 상주하였기 禁勅의 이행을 재삼 명하고 있다. 張保臯가 靑海鎮大使로 임명된 것은 이보다 6개월 전의 일이었다.

貿易품은 朝貢品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前者의 경우 新羅의 수출품은 금속공예품, 金銀銅과 그 제품, 綿 기타의 직물, 약재 등이었으나 後者の 경우는 主된 수출품은 노예였고 唐으로부터의 수입품은 기근의 기사가 많은 것을 보면 양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당시의 新羅의 최대의 수출품은 노예로서 그 거래가 이들 海賊의 가장 큰 收入源이었으리라는 것이다.

續日本後記 承和 2년 3월 14일 條에 보면 최근 新羅의 商人이 壹岐섬에 와서 엿보는 일이 끊이지 않으니 섬 주민 330인을 무장시켜 지키도록 하였다. 이 지역에서 商人이 武力을 사용하여 입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노예밖에 없다는 것이다⁴⁴⁾.

海賊이란 海上에서 선박을 공격하여 선박, 貨物, 선원, 승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폭력을 써서 탈취하는 자이다. 8世紀에서 11世紀에 걸쳐 北유럽을 근거로 활동한 바이킹(Vikings)은 서유럽의 各地를 습격하여 재물과 사람을 약탈하였다. 아랍帝國이나 東로마帝國과 거래할 때의 상품을 입수하기 위한 폭력행위였다. 이는 海賊활동의 한 면에 불과하다. 海賊에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 약탈한 재물을 모두 묻어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들은 재물을 팔아서 이익을

올려야 한다. 즉 海賊에게는 商人으로서의 일면이 있다. 말하자면 배에 탄 商人이라 하겠다. 그들은 自衛를 위해 무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육지에 사는 사람이 거래를 거부하면 부득이 폭력에 호소하여 필요한 상품을 입수하는 것이다.

그들이 활약하는 무대는 “판자 한 장 밑은 지옥”이라는 해상이다. 그러한 곳에서 활동하려면 航海術, 造船術이라는 특수한 기술과 氣象, 天文, 바다의 풍파, 조류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바다에서 활동하는 海商人, 海賊, 水軍은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집단이다.

육상의 權力과 결합하여 海賊을 집압하는 水軍도 본래는 한 배에서 나온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간판을 고쳐 다는 경우도 없지 않다. 1669의 파나마의 약탈로 유명해진 大海賊 헨리 모오건은 뒤에 자마이카 副總督이 되어 海賊 진압에 나섰다. 海賊, 海商人, 水軍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이다.

古代의 地中海에서 활약한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카르타고의 海商은 모두 海賊으로서도 활약하였다. 루네쌍스 時代 또는 그 이후에도 전쟁이 끝나서 軍船을 계류하고 水軍이 해체되면 해체된 水軍중에서 海賊을 모집하였다⁴⁵⁾. 海上勢力으로 등장하려면 海賊이든 水軍이든 바다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專門知識과 기술 및 생활경험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史料로서 新羅海賊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高麗史 卷1 太祖世家 乾化초(911)에 王建이 羅州 앞바다의 珍島, 皐衣島를 점령하고 나주를 봉쇄한 後百濟의 水軍을 격파한 뒤 도서 地方의 海賊을 소탕한 사실의 기록에 보면 後百濟의 영토인 壓海島에 섬 출신의 能昌이라는 海賊의 두목이 있고 葛草島에도 海賊들이 있어 海島에 근거를 두고 서로 결속된 그들 세력에 대하여 王建의 水軍도 이를 경시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 이들 섬에서 海賊을 平定한 다음인 914년에 王建 水軍의 나주 진주에 관한 고려사 世紀의 기사에 보면 이들 평정된 섬이 아닌 딴 섬에도 海賊이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⁶⁾.

6. 統一新羅의 海上貿易과 張保臯

新羅下代(780 이래)의 王位계승전쟁에 따른 政治社會的 混亂으로 中央政府의 權力은 약화되고 地方의 호족세력이 대두되면서 新羅의 역사무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뀌었다. 骨品制의 제약 때문에 중앙의 政治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던 이들 地方勢力은 눈을 海外로 돌려 그들의 活動무대를 海上貿易에서 찾았다. 미천한 계급의 海島출신 新羅 水夫나 어부, 貿易商人들이 黃海와 東支那海에서 中國, 新羅, 日本사이의 三角貿易을 지배하게 된다⁴⁷⁾.

지금까지는 新羅의 外國貿易은 朝貢의 형식으로 조정의 使節에 의해 행해졌고 貿易상의 이익을 조정에서 독점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政治적 混亂으로 인하여 조정에서 使節을 제대로 파견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행정력도 이전처럼 미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民間의 私貿易이 성행하게 되었다. 日本에서도 對馬島에 新羅와의 통역을 맡은 新羅譯語를 증설하였다.

新羅人의 왕래가 빈번한 唐의 山東半島나 大運河 연변, 淮河 유역 등에는 新羅人의 거류지가 생겨나 이를 新羅坊이라 하였다. 新羅人의 거류지에는 이들을 관할하는 관청으로서 新羅所가

설치되고 거류민들은 거기에 寺院을 세워 항해의 安全을 기원하였다. 新羅院이라 불리는 사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張保臯가 山東의 文登縣 赤山村에 세운 法花院이었는데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이는 新羅人은 일시에 250명이나 되었다.

海上貿易을 크게 벌인 대표적 인물은 靑海鎮(완도)의 張保臯였다⁴⁸⁾. 그 밖에도 康州(진주)의 王逢規나 松嶽(개성)의 作帝建(王建의 조부) 金州(김해)의 李彦模 등은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⁴⁹⁾.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도 南陽이나 羅州 등 海上貿易이 활발해진 근거지에는 그들과 비슷한 海上 세력가들이 있었을 것이다.

張保臯는 唐의 徐州에서 武寧軍에 들어가 軍中小將이 되었다. 이 계급은 오늘날의 장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小部隊의 지휘자일 것이다. 唐에서 中國人 海賊이 新羅人을 납치하여 노예로 파는 것을 알고 新羅에 귀국하여 王에게 海賊을 소탕하겠다고 간청하여 靑海鎮에 大使로서 주둔하면서 海賊을 막았다(흥덕왕 3년, 828년). 張保臯의 활동에 관한 가장 믿을 만한 史料는 日本의 唐 留學僧인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이다. 그에 의하면 張保臯는 唐과 新羅사이의 海上交通을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唐에 살고 있었던 新羅人도 지배하고 있었던 느낌을 받는다. 아마도 張保臯는 新羅 西南海 주변의 海賊, 어민, 뱃사람과 靑海(완도)의 섬사람을 모아 民兵으로서의 水軍을 조직하여 그의 통제하에 두고 일종의 海上帝國을 건설하여 商人君主노릇을 하였을 것이다⁵⁰⁾. 그는 新羅人이 많이 살고 있던 唐의 地方官에게도 해상의 안전과 貿易의 이익을 보증해 주는 환영할 만한 존재였음에 틀림없다.

완도는 韓半島 西南端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唐, 新羅, 日本 사이의 海上交通을 지배하는 요지여서 三國間의 國際貿易의 中心地였을 것이다. 水軍 기지의 大使였으나 海賊소탕은 일시적인 업무이고 그의 주된 活動은 貿易에 종사하는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貿易에 종사하는 선박과 해상경비만 전담하는 선박의 2元구조로 조직할 수도 있겠으나 아마도 모든 배는 貿易船으로 기능하면서 각 선박에 무장한 水軍병사가 승선하고 있었을 것이다.

張保臯의 세력은 점차 強大해져서 新羅의 國政을 좌우할 정도가 되었다. 王位계승전에서 패한 政治 망명자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 사람의 왕위계승전에 자기의 私兵인 5천명의 병사를 파병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839). 그는 新羅조정에서 완전히 독립한 존재로서 자유로이 交易하였으며 드디어는 日本에도 직접 使節을 파견하기에 이른다. 이 정도의 세력을 가졌던 張保臯도 그가 미친한 海島人 출신이라는 新羅귀족들의 先入見을 물리치고 자기 딸을 文聖王의 次妃로 삼으려 하다가 조정의 집권귀족이 보낸 자객인 염장에게 암살을 당하고 만다(841).

張保臯의 지배하에 있었던 海賊의 貿易활동중 상당한 부분은 노예貿易이었으리라는 것이며 張保臯는 그 공급처를 新羅가 아니라 日本에 구함으로써 新羅人이 海賊에 의하여 中國에 팔려가는 것을 방지하였으리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자면 日本쪽에도 여기에 협력하는 세력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續日本後記 805년 2월 10일 條에는 이를 뒷받침하듯 세도內海와 九州(九州)지방의 각처에서 海賊활동이 성하여 地方官으로 하여금 이들을 퇴치하도록 명하고 있다⁵¹⁾

張保臯가 靑海鎮 大使로 활약하던 기간은 13년에 불과하였지만 이 때가 新羅海上活動의 전성 시기였다. 張保臯가 사망한 뒤에도 靑海鎮은 10년 동안 더 존속하다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東아시아 海域에서는 中國人이 新羅人을 대신하여 해양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韓民族의 해양활동의 전통이 몰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에도 王建, 견훤 등의 西海, 西南海 지방 海上勢力이 여전히 활약하였다. 新羅가 멸망하고 高麗가 건국된 뒤에는 南宋과 활발한 海上貿易이 이루어졌으며 蒙古와 항쟁할 때는 江華島에서 水軍으로 30여년간이나 저항을 계속한다. 李氏朝鮮時代에 풍신수길의 倭 水軍에게 궤멸적인 타격을 입힌 사례 등은 韓民族의 海上活動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V. 結 語

이제까지 統一新羅時代까지의 韓民族의 海上活動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海上交易이 발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海上活動을 하기위한 立地條件으로서 긴 海岸線과 도서地方을 가짐으로써 바다에 사는 海洋指向의 民族性을 길러야 하고 三角貿易을 중계할 수 있는 길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統一新羅時代의 활발한 국제交易이 이루어진 것은 政府의 규제가 완화 내지 소멸되어 自由로운 民間의 활동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新羅의 國力이 지나치게 쇠퇴함으로써 張保皋가 사망한 뒤로 中國人에게 東아시아에서의 해상패권을 물려주게 된 것은 政治의 安定이 결여되고 국가의 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었다.

미 주

- 1) 生田滋, 「海の道と日本列島史」, 海から見た 日本文化, 小學, 1992, p.317
- 2) Kurt von Boeckman, Vom Kurturreich, des Meers, Berlin, 1924, S.49-54
- 3) 崔碩男, 韓國水運史, 서울, 鳴洋社, 1965, pp.15-16
- 4) 小嶋芳孝, 「高句麗渤海との交流」, 日本海と北國文化, 小學, 東京, 1990, pp.196-9
- 5) 崔碩男, 전계서, pp.18-19
- 6) 生田滋, 전계논문, p.336
- 7) 라이샤워-페어뱅크(全海宗 역), 東洋文化史(上), 서울, 을유문화사, p.597
- 8) 生田滋, 전계서, p.339
- 9) .상계서, pp.339-40
- 10) 라이샤워-페어뱅크, 전계서, p.603
- 11) KBS TV, 10대 文化유산-무령왕릉, 95.10.17. 일요스페셜
- 12) 李基白, 韓國史新論 新修版, 서울, 일조각, 1992, P.67
- 13) 崔碩男, 전계서, p.21
- 14) 李基白, 전계서, p.71
- 15) 崔碩男, 전계서, pp.38-42
- 16) 나이도습포, 「新羅人の海上活動について」, 朝鮮史研究, 京都大學 東洋史研究會, 1961, pp.343-6
- 17) 崔碩男, 전계서, pp.34-36
- 18) 나이도습포, 전계논문, pp.345-8
- 19) 生田滋, 「新羅の海賊」, 日本海と出雲世界, 東京, 小學, 1991, pp.311-12

- 20) 상계논문, pp.312-14
- 21) 상계논문, pp.316-17
- 22) 상계논문, pp.317-18
- 23) 三國史記 卷七 文武王 12년條와 卷8 新羅本紀 제8 聖德王 22년, 29년, 30년條, 권11 新羅本紀 제11 景文王 9년條.
- 24) 小嶋芳孝, 전계논문 註4, pp.201-206
- 25) 위논문, pp.207-8
- 26) 위논문, pp.209-10
- 27) 李基白, 전게서, pp.132-133, 註 12.
- 28) 라이샤워-페어뱅크, 전게서 註10, p.531
- 29) 生田滋, 「新羅の海賊」, 日本海と出雲世界, 東京, 小學, 1991, p.321
- 30) 무함마드 간수, 新羅西域交流史, 서울, 檀國大 出版部, 1994, pp.248-250
- 31) 玉井是博, 唐代の外國奴-特に新羅奴に就いて-小田先生頌壽記念, 朝鮮論集, 昭和 8, pp.696-710
- 32) 무함마드 간수, 전게서, pp.239이하
- 33) 전백찬(이진복-김진옥 번역), 中國全史(上), 서울, 학민사, 1990, pp.422-424
- 34) 舊唐書 권124, 列傳 74 侯希逸李正己
- 35) 生田滋, 전계논문 註29, p.322
- 36) 舊唐書 권199上, 新羅傳(元和 11년) 및 三國史記 권 10 憲德王 8년 春正月條
- 37) 三國史記 권 28, 百濟本紀 제6 義慈王 20년 春2月條
- 38)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제10(總章) 2년 己巳 2月
- 39)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 제9 보장왕 4년조
- 40) 내등슌포, 「唐代中國における朝鮮人の活動について」, 朝鮮史研究, pp.481-490
- 41) 金文經, 「在唐新羅人の集落과 그 構造」, 李弘植記念韓國史學논총 pp.110-21
- 42) 전백찬, 이진복-김진옥 번역, 전게서, pp.465-66
- 43) Conrad Schirokauer, A brief History of Chinese and Japanese Civilizations, Harcourt Brace Javonovich, New York, 1978. p.110
- 44) 生田滋, 「新羅の海賊」, p.328, 註29
- 45) Encyclopaedia Britannica VII, 1979, p.1025, paracy 참조.
- 46) 李永澤, 「張保臯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제14집, 1979년3월 pp.80-81
- 47) 라이샤워-페어뱅크, 전게서 註10, p.531
- 48) 장보고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연구목록을 보려면 莞島文化院에서 펴낸 張保臯의 新研究, 1985. 를 참조할 것.
- 49) 박한설, 「王建世系の 貿易活動에 對하여」, 史叢, 고려大 史學會, 제10집을 참조
- 50) Edwin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New York: Ronald Press), 1995. 5. p.287
- 51) 生田滋, 전계논문 註44, p.328

